3. 성령과 더러운 영 (1:8; 3:20-30)

들어가면서.

- 막 1:8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신령**(神靈)/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 내어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다(12-13 절)
- "성령"(holy spirit)은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 개념 (예외. "그의 거룩한 영"—자체로 존재 불가: 시 51:11; 사 63:10-11). 성령의 반대개념은=> 속된 영. **성(聖)과 속(俗)**
- "악령"(evil spirit)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음 (예외. 행 19:15-16); "더러운 영" (11x)=>이원론적의 이해, 성령/악령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말. 한 가지 영이 거룩한 영/더러운 영으로 나타남.
- 즉, 콘스탄티누스 II 이후 기독교 제국 신학의 바탕이 되는 삼위일체 속의 성령 이해는 복음서/성서에는 없다는 말 => 마가복음 자체로 읽고 그 뜻을 살펴야. 마가복음에 영(靈, 23 번)

월터 윙크, 『사탄의 (지배)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저항: 지배체제 속의 악령들에 대한 분별과 저항』, 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1. 창조신화(에누마 엘리쉬)=>창조는 폭력으로 시작. 폭력을 정당화, 악을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 만화/영화에 들어난 현대인의 종교는 폭력의 종교/영성. 교훈: ①여자(티아맛트)는 남자(마르둑)에 종속; ②백성(신들)은 지배자(마르둑, 바벨론 신)에 굴복=>정복자/승리자는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 (지배체제) 종교/신학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
2. 통합적 세계관: 내부의 영적인 실재(inner spiritual reality)+ 외부의 물리적 표상(outer manifestation) (불가분의 관계). 이 영적인 실재=> 성령과 악령(신학)
3. 우리들 문제점=>권세를 공중에 떠도는 악마, 정치 구조와 별개(신학적 세계관, 근본주의) 혹은 영적 차원 무시(물질적 세계관, 자유주의)
4.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힘은 실제 제도에서 발산되는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투영의 과정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사탄의 체제, 33). 여기서 영적인 힘, "사탄" 혹은 "귀신"은 상징/투영으로 이 뒤에 무서운 경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험에 대처해야 한다.
5. **악마=>"거룩한 소명을 배신해 버린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사탄의 체제, 35)**. 영성=이데올로기=신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6. 세상(κόσμος, cosmos)=지배체제; 아이온(αἰῶν, aion)=지배의 시대; 싸르크스(σάρξ, sarx)=지배받는 존재(pp. 97-116). 예)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지배체제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자신"(p. 113)

윙크. "**Facing the Myth of Redemptive Violence" by Walter Wink** -Aug 23, 2006
http://www.ekklesia.co.uk/content/cpt/article_060823wink.shtml

- 세상은 지배체제 하에 놓여 있다. => The Combat Myth, 창조신화, 어린이 만화 영화(Popeye). 36,000 hrs; 15000 muders up to 18 years old
- 지배체제 속의 악령은 실재=> 영적 (myth of redemptive violence)=> the victory of order over chaos by means of violence. e.g., blood theory of redemption, 현재 종교
- "Kingdom of God," the antithesis of the Domination System
- 예수의 길/복음/신학. 대응: ①폭력; ②침묵; ③ 비폭력 저항=>militant nonviolent resistance
- 세례=> 마귀축출(exorcism).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막 1:10, 25 절 비교. 윙크, 『사탄의 가면을 벗겨라』, 133-34. 루터도 같은 견해. Luther understood the baptismal rite to be an **exorcism**. See "The Order of **Baptism**," Luther's Works,. Vol. 53, pp. 96 ff. (Brad A. Binau); 눈 아래 세번 불고, "Depart Thou unclean spirit and give room to the holy spirit.

A. 하느님 복음(막 1:14-15)=> 예수 복음(1:1)=> 마가복음… => 내 복음

- 마가복음은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διδαχή << διδάκσκω =22 번). "가르침" ➔ 마태(3+13=16); 마가(5+17=**22**); 누가(1+15=16); 요한(3+10=13);
- 호칭: "선생" (4:38; 5:35; 9:17, 38; 10:17, 20, 35; 12:14, 19, 32; 13:1; 14:14); 랍비(9:5; 10:51; 11:21; 14:45); 주님(7:28). Cf. "주님" in 마태(34); 마가(1); 누가(27); 요한(33)
- Jesus is the Christ (Messiah). In what sense? (Jewish concept: a future king or a cosmic deliverer)
- Mk. 1:1; 8:29; 9:41; 12:35; 13:21; 14:61; 15:32; (7x) => הַמָּשִׁיחַ

- Messianic Secret? => William Wrede (1901), not original but Mk's theological addition; Mk 8:29 as the high point (Q. Whose problem? The Marcan community or the modern Christians?)=> a Different Messiah (one who had to suffer and to die)

B. 다른 복음/권위: 성령 들림, 더러운 영/귀신 들림

- 영(靈, 23 번)

Spirit (πνεῦμα)		Holy Spirit (πνεῦμα ἅγιον)	Unclean Spirit (πνεῦμα ἀκάθαρτον)
God	Jesus		
1:10, 12	2:8; 8:12	1:8; **3:29**; 12:36; 13:11; 14:38	1:23, 26, 27; 3:11, **30**, ; 5:2, 8, 13; 6:7; 7:25; 9:17 (ἄλαλον), 20(πνεῦμα)[1], 25

- "권위"를 가진 자. =>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setting. 가버나움 공회. 24 절, "우리를"=> 귀신 들린 사람=지배체제의 사람들.
- 25 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가라사대…" Q. 누구를 꾸짖었을까? "그"(αὐτῷ)가 누구인가? 헬라어 αὐτῷ는 남성, 중성이 될 수 있다. 25 절 후반부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에서 볼 수 있듯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과 분리해 사용함으로, "그"는 "그 영," 곧 더러운 영(πνεῦμα, 중성)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막 9:28.
- 권위/권세(막 1:22, 27; 2:10; 3:15; 6:7; 11:28[2], 29, 33; 13:34); 출처—보통 사회구조와 다름 (cf. 11:33)=>현 권세들과 대조, 대치(1:22).
- 막 1:27. "권세 있는 새 교훈"(개역한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표준새번역); "권위 있는 새 교훈"(공동번역)"; "new teaching with authority(NIV, NRSV); "with authority, he commands" (KJV, YLT, RSV). 다른 해석=>"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AWP)=> pointing to a different kind/or understanding of authority. 보통 용법: 권세를 갖다/주다=> having authority (ἐξουσίαν ἔχων)=> 엿장수 맘대로 행세; 막 1:27: 권세에 따른(κατ' ἐξουσίαν)=> 순종하는 모습, 조심성을 내포. 예수와 권세를 분리해서 생각 (헬라어 문법공부. κατά + accusative => "accroding to/ …에 따라". 고후 13:10, κατὰ τὴν ἐξουσίαν, "권세를 따라"; 막 7:5, κατὰ τὴν παράδοσιν, "전통을 따라")
- 성령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가(καταβαῖνον εἰς αὐτόν 막 1:10) 혹은 임하는가(ἐπ' αὐτόν 마 3:16; 눅 3:22; 요 1:32). Hint: 귀신에게, "Come out of him" (ἐξ αὐτοῦ, 1:25).

결론.

- 막 1:23-28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심, 그 후의 반응=> "new teaching according to authority"(AWP)=> 권세에 대한 다른 이해
- 성령/악령("더러운 영")=> 동전의 양면성 (타락한 영=> 잘못된 신학). 악령은 실재(實在)요 실존(實存). 그러나 이를 본래부터 하느님과 대립적인 존재로 이해하면(근본주의), 우리와 관련 없음. 악령의 존재를 부인함도(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 나의 타락한 모습(지배체제, 지배계급의 신학에 물듬)=> 회개 (μετανοέω= μετα+νοεω, 생각 고쳐 먹기)=>구원(예수의 복음)의 전통적 도식을 새롭게 이해. 총체적 이해. "타락"이란 단지 우리 모두가 지배체제의 조건들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사탄의 체제, 128). 회개의 열매: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누구와 함께 다니나? (하느님과 관계? invisible, dangerous)
- 귀신(더러운 영/악령)을 쫓아낸다 함은 내게 있는 지배체제의 영을 축출하는 것=>새로운 신학.

생각해 보기. 어떤 삶이 신령을 구체화하고 있는가? (신령, 막 1:10, 12=> 태초에 우리에게 불어 넣어진 영, 창 2:7=> 혹은 하느님의 형상을 반영, 창 1:27=> 그 외, 요 20:22, 사도행전 2 장)

판단 기준

- 인간성 극대화/회복 (하느님의 창조역사에 참여)
- 공동체적 삶, 사람이 독거--혼자 잘먹고 잘사는 것--좋지 않다. 교회(ἐκκλησία)

[1] "귀신"(개역한글, 표준새번역); "악령"(공동번역)